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음 6월 1일) 제208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호남제일정 피향정 연꽃 만발 여름철 방문객들의 발길 유혹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으로 이름 높은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9호)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다.

지난주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 하더니 어느새 연못 가득한 연꽃들이 꽃봉오리들을 피워 올렸다. 녹색 잎과 연분홍 꽃봉오리들의 어우러짐이 눈을 즐겁게 하고, 바람 끝에 묻어 코끝을 간질이는 향이 은은하다. 피향정 연꽃은 내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아름다운 장관을 즐기 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진작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왔다는 사진작가는 "아름다운 한옥 정자와 아담한 크기의 연못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답다"며 "피향정 연꽃 자라는 전국 최고" 연신 엄지손가락을 추켜올렸다.

시 관계자는 "연제부턴가 정자와 연못 사이에 담장과 통신주가 세워

져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중 시가 적극 나서 지난해 담장을 철거하고 통신주를 제거,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면서 올해는 더욱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흙 속에서 자리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은 그 특성 때문에 예로부터 '군자의 꽃'으로 불리어 왔다. 특히, 송나라 철학자 주돈이(周敦頤:1017~1073)가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속이 비어듯 곧으며 향기는 먼 곳에서 맡을수록 맑기에 군자를 상징한다"고 한 이후 연꽃은 '군자의 꽃'으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피향정은 신라말 태산군수(현재 태인·칠보 등 일대)를 역임한 고운 최치원이 족적과 흔이 서려 있는 곳으로 예부터 연꽃으로 유명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도, 일자리 창출 본격화

(민선 7기)

스마트 농식품 등
현 추진 정책 연계
청년기능수당 등
주요공약 내실화

전라북도가 민선 7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발판을 조여매고 나섰다.

전북도는 12일, 최정호 정무부지사 주재로 일자리 창출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실행과제의 진행상황과 민선7기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정부 출범이후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중점 추진할 4대전략 17개과제 39개 실행과제를 마련하고 올해 초부터 집중 추진 관리해 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행과제의 2분기까지 추진상황과 하반기에 집중 추

진할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새롭게 추진될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 했는데, 도는 6개 추진방향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의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진화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방침이다.

스마트 농식품산업, 문화ICT융합 여행체험산업, 탄소융복합 산업 등 민선7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일관 되게 추진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사회적가치 청년기능수당, 전북형 벤처창업허브구축, 농산어촌 마을청년리더 육성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 된 주요 공약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 다.

또한, 청년직무인턴, 드림공연예술 단 지원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일자

리 사업을 확대 개선해 추진하고 타 시도 우수 일자리사업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도를 대표할 브랜드 일자리사 업을 모델화 해 일자리 정책을 리드 한다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개편 방향과 고용 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 자리 창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 자리 창출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실행과제는 도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주요분야 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담긴 만큼, 실행과제에 맞춰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 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 점에서 상시 점검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지평선축제 통한 문화교류... 김제시, 도 국제교류센터와 협약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2일 김제시 청에서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분야 국제교류 촉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농경문 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양 기관 의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해 체결됐다.

협력분야는 한국-러시아간 지평선 축제를 통한 문화교류추진, 한국-태

국 수교 60주년 기념 한·태 관광진 흥협회 임원 초청, 지평선축제-전북 국제교류 페스티벌 간 공동 홍보 등 으로, 김제시와 전북도 국제교류센 터가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를 폭 넓게 추진하여 민간 국제교류의 수 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김제=곽도태 기자

군산야행, 피너클 어워드 수상

IFEA 한국지부 주관... 대표 프로그램 · 축제기관상 '영예'

군산시의 대표적인 야간 문화축 제인 군산야행(夜行)이 지난 11일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에서 주관하는 '2018 세계축제협회 (IFEA) 한국지부 총회 및 제12회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시상식'에서 대표 프로그램상과 축제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 다.

또한 도시재생, 문화재 활용 분 야에서도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 돼 세계 각국의 축제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화관광 도시로서 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군산야행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 로 선정돼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

심 일원에서 2016년~2017년 2년 연속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근대문 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콘 텐츠 개발과 역사교육·전시·체 협·관광·테마 공연 등 80여 가 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성공적 으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문 화재청으로부터 2년 연속 전국 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군산시가 문화관광 선진도 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군산야행 과 시간여행축제가 시민이 참여하 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문화 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문 열고 냉방영업' 상가 전주시, 에너지절약 계도

전주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상가들 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전계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상가 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기간 중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문 열고 냉방영업 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 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 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 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4회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 해 달라"고 당부했 다.

/송호철 기자

2018 전국청소년미술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모두가 행복한 이곳,
군산시입니다.